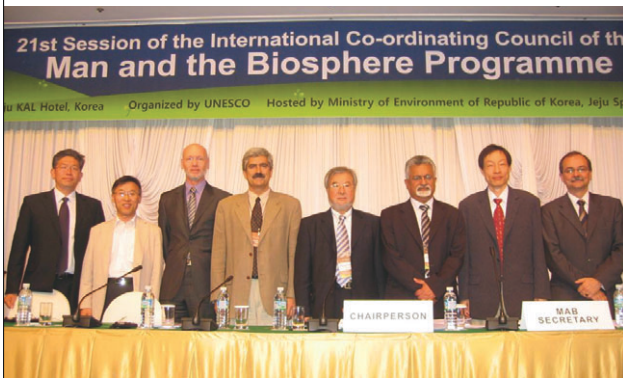


〈제21차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

신안 다도해 · 북한 묘향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한국 제안으로 ‘세계 섬 ·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설립



▲ ‘세계 섬 ·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설립안 통과 후 자리를 함께한 MAB 국제조정이사회 관계자들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21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가 신안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한국과 스페인이 공동 제안한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 섬 ·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설립 등의 성과를 남기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전 세계 34개 유네스코 MAB 이사국을 비롯, 참관국과 유네스코 관계자 등 120명이 참가한 이번 이사회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열린 첫 회의로서, 아시아 지역 이사국뿐만 아니라 참관국까지 참석해 국내 및 지역 내 MAB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높였다. 또 격년으로 열린 이사회를 앞으로는 매년 파리 유네스코 본부와 회원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이사회는 ‘세계 생물다양성의 해’인 2010년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다. (▶ 관련기사 5면) ■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력 남해안 공릉화석지는 등재 불가 의견

우리나라 조선왕릉 40기가 오는 6월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왕릉과 함께 신청했던 남해안 백악기 공릉화석지는 세계유산 등재가 어렵게 됐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보를 심사하는 전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조선왕릉 평가보고서를 통해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권고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ICOMOS의 등재 권고 의견이 그대로 세계유산 선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이번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인 조선왕릉

은 전체 42기 가운데 북한에 있는 2기를 제외한 모두가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ICOMOS는 평가보고서에서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왕릉이 동아시아 묘제의 중요한 발전단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600년 넘게 매해 제례의식을 거행하는 등 전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세계자연유산 등재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남해안 공릉화석지에 대해 아시아에서 공릉 발자국 화석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지역적 중요성은 있으나, 화석산지로서 등재되기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

versal value)’가 없다고 평했다. 더불어 이미 세계유산에 오른 다른 화석산지와의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남해안 보성, 화순, 해남, 여수, 고성 등지의 공릉 발자국 화석지를 ‘한국 백악기 공릉해안’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으며, 같은 해 10월 IUCN에서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해당지역을 실사한 바 있다. ■



▲ 서오릉의 경릉(소혜왕후릉)

2005년 제33차 총회에서 아태지역 무형유산보호센터 설립의사를 표명한 이후 4년 만에 사실상 유네스코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 관련기사 4면) ■

제18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유네스코 역할 강화 위한 회원국 지원 촉구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18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와 같은 다자간 협력체의 활동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2010-2011년도 유네스코 사업예산안과 관련해 마쓰우라 사무총장은 전 회계연도에 비해 4천만 달러(미화)를 증액한 6억 7천 1백만 달러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반면, 제네바 그룹 소속의 공여국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여전히 높게 책정된 행정비용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고 사업비를 증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쓰우라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2015년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FA)’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엔 내 관련기구 및 각 분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당수의 회원국들은 세계적 경제 위기가 유네스코의 최우선 사업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사업 수행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네스코 본부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집행이사회의 가장 큰 성과로 손꼽히는 10개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협력기관) 설립안 승인은 한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사안으로서,

주요기사

3



인터뷰: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4

제18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5



제21차
MAB 국제조정이사회

8

툰아보는 유네스코 역사 12장면 ⑥
국제이해교육—
함께하는 삶을 배우다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을 지정하는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가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선 왕릉을 비롯한 총 37개 후보지역의 세계유산 등재여부를 결정한다. ■

제1차 기후변화윤리포럼 개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기상청이 공동 주최하는 제1차 기후변화윤리포럼이 6월 1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기후변화의 윤리적 쟁점에 관한 국내외 논의를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위한 정신적 기반이 될 가치관 및 윤리원칙을 모색하고자 기획한 이번 포럼에는 기후변화윤리 논의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브라운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와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일반인들도 참석이 가능하며, 하반기에 제2차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



“손에 손잡고, 국경의 벽을 넘어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캐러밴 프로그램, 경남 통영 사랑초등학교 (5.15-17)

Photo News



‘유네스코 ESD 국제 논술평의회’ 양해각서 체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ESD) 국제 논술평의회’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지난 5월 7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 국민일보 백화중 전무(가운데)를 비롯, 대회를 공동 주관하는 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미지센터)의 최형근 소장과 국제영어대회위원회(IET) 강석일 대표(왼쪽)가 참석해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의 ESD 이해 증진 및 논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유네스코 ESD 논술평의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 논술 및 말하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

한스 도빌 사무총장보 방한 미래포럼 참가, 한국위원회 방문



한스 도빌 유네스코 전략기획국 사무총장보가 지난 5월 7일 유네스코 미래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경희대학교와 유엔경제사회국이 공동 주최한 ‘세계시민포럼(5월 5-8일 개최)’의 한 세션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한스 도빌 사무총장보를 비롯, 기욤 그로썬 OECD 개발센터 정책자문관, 정래권 기후변화 대사, 남상민 ESCAP 환경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도빌 사무총장보는 기초강연을 통해 유네스코 관련 사업을 소개하면서 “경제위기로 교육 및 환경 관련 국제활동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로부터의 투자, 사회적 행동을 통한 녹색 경제 지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현 금융경제 위기가 환경 분야의 국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하고, 국제적인 시민 참여 활동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아울러 같은 날 도빌 사무총장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빌 사무총장보는 우선 사업의 균형 있는 선정, 금융위기로 인한 예산 절감 문제 등 향후 유네스코의 과제들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개최되는 제18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와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2010-2011년도 사업계획/예산 수립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선출이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양 회의에서 한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라트비아 국가위 사무총장 한국위원회 방문



다그니야 발티나(Dagnija Baltina) 라트비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이 6월 1일 유네스코한

국위원회 사무처를 방문, 한위 직원들과 양국 국가위 활동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제21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국제조정 이사회 참석차 방한한 발티나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라트비아 국가위에서 추진 중인 ‘도서관 증축을 통한 교육 증진 사업’, ‘무형문화유산 사업’ 등 교육, 문화 분야의 다양한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위원회가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라트비아 공화국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와 더불어 유럽의 발트해 3국 가운데 하나로, 1991년 구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했다. 같은 해 유네스코에 가입했으며, 1992년에 국가위원회를 설립했다. ■

제3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 개최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이 7월 2일부터 7일까지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조선대학교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세계화 및 글로벌 경제위기로 위협받고 있는 인류 사회에 대한 아시아 청년들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다시 그리는 우리의 미래: 아시아 대안을 찾아서’를 주제로 아시아 24개국 정부기관 및 시민사회 청년 관련 실무자, 유네스코 본부 인사 등 7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오는 10월 유네스코 본부(파리)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본부 청년포럼’에서 발표할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포럼 첫날은 사라바이(Kartikaya Sarabhai) 인도 환경교육센터 설립이사 와 다카나이(Marie Lisa M. Dacanay) 아시아사회적기업연구원 원장이 기초강연을 할 예정이며, 유네스코 아태지역 인문사회과학 분야 고문 데릴 메이서(Darryl Macer) 박사가 특별강연을 통해 ‘청년의 참여를 위한 유네스코의 전략’을 소개한다. 일반인도 참석 가능하다. ■

한국위원회-온스타일 문화예술인재육성 기금사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온미디어(대표 김성수) 그룹의 계열사인 온스타일(On Style)과 공동으로 국내의 문화예술계 거장들의 예술작품을 기증받는 ‘Style meets Art’ 캠페인을 기획, 전개한다.

미디어 회사인 온스타일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예술가들의 작품을 활용해 영상을 제작, 5월 23일부터 약 2개월 주기로 한 편씩 방송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작가들의 작품 제작 과정과 더불어 그들의 작품세계에 대한 인터뷰 등을 담은 스타일 다큐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예술작품은 올해 말 경매를 통해 판매되며, 이를 통해 모은 수익금 전액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전달되어 2010년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의 한국 개최를 앞두고 국내의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onmoviestyle.com/stylemeetsart> 참조. ■

청년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제6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 제6차 유네스코 청년포럼이 지난 5월 18일 청년, 대학생 및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세계경제위기와 함께 실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한국의 청년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청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적 대화’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함께 난관을 타파 해나갈 방안을 모색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년세대를 방치한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면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회 참여를 통해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기초강연을 한 강대근 전 아시아·태평양양국제이해교육원 원장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끌어 온 청년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청년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포럼의 하이라이트였던 원탁토론 시간

에는 학계, 정부, 언론,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기성세대 전문가와 청년 10명이 사전 공모를 통해 제안된 ‘한국 청년 5대 의제’를 주제로 열린 공방을 벌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는 “돈이 순환하는 체계에 종속되지 않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청년들의 몫”임을 강조하면서, “경력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자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 기사 6면) ■

〈한국 청년 5대 의제〉

- 직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자
- 교육 살리기: ‘스펙’ 제조공장에서 전 인교육, 학문연구를 위한 ‘학교’로 돌아가자
- 대신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깨닫고 스스로 자신감을 키우자
- 사회 참여를 통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자
- 세대와 계층, 지역을 넘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자

창간일: 1964. 1. 10
등록번호: 서울 라08043

발행인: 전택수

발행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표전화: 02-755-1105

주소: (우)100-810 서울시 중구 명동2가 50-14 유네스코회관

인쇄: 신세계기획

편집: 기사 관련 문의:

02-755-1151/ hjoh@unesco.or.kr

인터넷으로 『유네스코뉴스』 보기
www.unesco.or.kr/news

주요 웹사이트

- 유네스코본부: www.unesco.org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 한국유네스코평화센터: www.unesco.or.kr/upc
-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www.mizy.net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www.unescoapceiu.org
- 유네스코협회연맹: www.unesco.or.kr/knfuca
- 유네스코컬처링크: www.culturelink.or.kr



특별기고



무형유산 아태지역센터 설립과 국제협력

박성웅(아시아·태평양무형유산센터 소장)

신명나는 마을굿과 흥겨운 판소리 가락에서부터 장엄한 궁중 의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한국의 역사와 전통의 숨결을 면면히 지켜온 우리나라 무형유산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과거와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다. 더 나아가 무형유산은 국제적으로 문화다양성과 더불어 인류의 창조성 증진을 위한 주요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후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데 있어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형유산분야의 축적된 경험, 센터 설립으로 이어져

우리나라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일찍부터 국내 무형유산의 보호 및 전승에 힘써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1993년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s)’ 제도를 유네스코에 소개해 국제적인 문화유산 사업 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관련 국제협력워크숍 운영, ‘유네스코 아리랑상(UNESCO Arirang Prize)’ 시상 등을 추진함으로써 무형유산 보호 국제사업 분야 내 한국의 기여도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형유산 분야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05년부터 무형유산 분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의 국내 유치를 추진해왔다. 2007년부터는 이 유네스코 센터의 전신(前身)이 될 아태무형유산센터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특별기구로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게 되면서 지난 4월 27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18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58개 집행이

사회국은 한국 정부(문화재청)가 제안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유산 정보네트워크센터의 한국 설립을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총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협력기관)인 동 센터의 한국 내 설립이 최종 승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와 네트워킹 기능에 역점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광활한 초원의 유목 생활에 기반한 몽고의 게르 문화나 장가(long song), 인구가 10억 명이 넘는 인도의 여러 마을에서 거행되고 있는 고유한 전통의식과 공연예술 등 다양하고 풍성한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태지역도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부터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며, 상당수의 무형유산들이 사실상 소멸 또

는 변형의 위험으로부터 시급히 보호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오는 10월 유네스코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유네스코가 2003년도에 채택한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정신에 따라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통해 아태지역 내 지속가능발전, 평화의 문화 보급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센터는 정보와 네트워킹 분야 기능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지역과 함께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정보기술, 기록화 분야 내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회원국들이 무형유산 정보 체계와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차원의 협력 활동과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 내 무형유산 보호 환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국제센터의 국내 유치를 불과 수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남은 귀중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태지역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국제사업을 적시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국제기관이 한국에서 태동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인터뷰

2010년, 진정한 예술교육의 시발점으로

이대영(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예술이 가난을 구할 수 없지만,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서울 명동 삼일로 창고극장 앞 간판에 새겨진 문구이다. 예술이 개인의 창의성과 감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이해 등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를 고양하기 위한 예술교육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양질의 교육과 문화다양성 증진, 지속가능발전 등을 달성하는 데 빠질 수 없는 분야이다.

오는 2010년 5월 25일-28일(예정), 서울에서 제2차 예술교육 세계대회가 개최된다.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확산하는 동시에, 예술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적인 예술교육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이 대회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크다. 대회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유네스코 본부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이대영 원장으로부터 예술교육과 세계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국영수 위주 주입교육 대신 ‘창의성 교육’을

2004년 당시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

부)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흥원을 공동 설립했다. 학교교육, 사회교육, 인력양성, 국제교류 등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반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진흥원은 현재 2대 이대영 원장이 이끌어가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국영수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 타인에 대한 배려,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내 문화예술교육을 확산시키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외된 군인, 교도소 수감자, 노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교수로서 학계에 몸담고 있던 이대영 원장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소외계층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전파하겠다는 꿈을 안고 2008년에 진흥원장으로 부임했다. 더 나아가 이 원장은 진흥원 안에 교육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예술교육의 장르 다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현재 다루고 있는 음악, 미술, 연극 등의 분야 외에도 문학, 사진, 공예, 디자인 분야로도 예술교육을 확대해 통합적 교육을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교재 개발 및 교과 과정 연구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10년 예술교육 서울 선언문’ 준비

2010년 예술교육 세계대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흥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평화, 공존, 공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중 하나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술교육이 문화적 통합을 위한 유일무이한 의사소통의 수단임을 강조하는 ‘2010년 예술교육 서울 선언문’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0년은 6.25 전쟁 60주년이기도 합니다. 서울 선언문이 유엔 선언이나 유네스코 헌장처럼 ‘다름의 가치’가 아름답다는 것을 전 세계에 전달함으로써 진정한 예술교육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술교육 세계대회와 관련해 특히 진흥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예술교육 관련 용어집을 제작하는 ‘예술교육 글로서리 사업’과 예술교육 관련 아태지역 정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아태지역 옹저버토리 구축사업’이다.

“글로서리는 단순히 개념 및 용어 정리의 수준을 넘어 미래가치를 논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옹저버토리는 전 세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역력이 된다면 옹

저버토리를, 소수 언어로 소수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서도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필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 할까. 이 원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삼위일체’가 21세기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예술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어릴 때부터 어떠한 ‘문화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기고 지는 데에만 집착하고, 단순 암기용의 ‘봉어빵 지식’을 주입하는 것으로는 창의적인 21세기 인재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문화분과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원장은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정신을 확산하는 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제사회에서 영어나 불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2010년 예술교육 세계대회는 한국어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를 비롯한 전 세계 관계자들이 타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유네스코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련기사 7면) ■

- 정리: 오혜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홍보출판팀)

제18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허권(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

제18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한국을 포함한 58개 집행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총 62개의제가 상정된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본회의, 분과회의, 합동회의, 초안회의, 국가위원회 정보회의 등 공식회의 외에도 세계디지털도서관 출범 축하 리셉션 등 여러 모임들이 부대행사로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집행이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각 회원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의제가 많이 상정되었다. 2010-11년 본부 사업 및 예산안, 차기 사무총장 선출방식,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협력기관) 운영기준 등 민감한 의제들이 올라왔다. 한국은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세계예술교육대회 개최 등 직접 관련된 사업과 더불어 사회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선진국, 2010-11년 사업계획과 예산규모에 이견 보여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주 유네스코 베냉 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유네스코 사업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면서, 선진국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국제 지적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대내외 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사업보고를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FA)’ 사업처럼 현재 국제사회가 유네스코에 요구하고 있는 최빈국 교육지원사업과 함께, 과학역량 강화 등 여러 글로벌 이슈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진국의 재정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차기 2010-11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zero real growth)을 반영한 6억 7,100만 불을 승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선진국들은 본부의 행정제도 개선방안과 사업안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되

지 않은 제로 성장(zero nominal growth)으로 재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는 오는 10월 본부에서 개최될 정기 총회에서도 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와 물 문제, 유네스코 핵심 사업으로

유네스코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각 이사국들은 현재 유네스코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 속에서 사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의 명확한 설정과 함께 사업 효율성 제고, 네트워크 및 남남·남북협력 강화, 후진국의 역량강화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표명했다.

각 수석대표들이 강조한 분야별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사업의 경우 EFA 목표달성을 위한 후진국 교육역량강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이 강조되었다. 특히 독일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향후 주요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며, 그 일환으로 ESD 10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14년에 ESD 세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종합추진전략안을 차기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자연과학사업은 그동안 낮은 순위에 놓여 있던 과학정책 역량강화 분야가 우선 사업방향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아프리카 등 후진국의 과학 기자재 공급 및 과학교육 기반구축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기후변화, 물 관리 분야가 핵심 사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후진국의 남북 협력과 후진국간 남남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해양학, 지질학, 수문학 분야 등의 국제위원회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인권, 철학과 윤리, 문명 간 대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주로 거론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문

명 간 대화사업이 축소되고 문화부문으로 이전된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과학분야의 일정한 역할담당을 유지하고 여성의 지위향상 관련 사업을 비중 있게 다루어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분야에서는 특히 문화유산 보호 및 문화다양성 진흥을 위한 국제규범화 사업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문화재 반환을 위한 유네스코의 중재노력이 미진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과 관련된 원칙의 조기 제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 내 표현의 자유, 출판 및 언론의 독립성 보장, 정보격차의 극복, 기록유산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지지발언이 많았다. 특히 정보화 시대를 맞아 IT 기술의 전반적 보급과 함께 인류 평화, 교육 발전 등에 정보커뮤니케이션이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네스코, ‘말’ 보다는 ‘실천’ 하라

한국은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EFA 사업과 과학역량 강화사업을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일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본부예산과 관련해 현재 본부 사무총장이 제시한 예산안 배경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의 효과를 고려해 다시 검토·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예술교육대회가 사업안에 반영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예술교육 NGO들이 이 대회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정, 홍보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록유산 사업과 관련해 2010년 기록유산 엑스포가 개최된다는 점을 알리면서, 유네스코와의 공동 기획·추진을 통해 인류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의 보호에 전기를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향후 유네스코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지적 협력기구인 유네스코가 인류의 여러 중차대한 현안 해결에 있어 말의 성찬에서 벗어나, 보다 실천적 의지가 담보된 행동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행위원회 기간에는 현재 한위가 추진 중인 ‘문명과 대화 국제포럼’, 창의도시 워크숍, 북한교과서 용지 지원사업, 아태청소년포럼, ‘세계기록문화 엑스포 2010’ 등과 관련해 본부 사무처 직원들과 실무회의를 가졌다. 특히 지금까지의 본부 집행이사회 참석과 달리, 한위 차원에서는 최초로 사업수정안을 작성·제출하는 등 새로운 차원의 본부사업 참여방안이 시도되었다.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카테고리 II 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금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식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글로벌 이슈에 눈을 돌릴 때

여러 국제기구 가운데 대표적인 국제지적협력기구인 유네스코는 한국의 국익 신장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종 담론 형성에 국내 전문가와 학자, 기관이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지원활동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국력 신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주요 정책 담당자들 간 유네스코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제활동을 위한 적절한 협력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금년 하반기 상주대표부의 대사직 임명과 관련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외교통상부, 주 유네스코 상주대표부 및 관련 정부부처 간 책임과 역할수행에 대한 명확한 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현재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주요 글로벌 이슈와 쟁점에 대한 철저한 정책분석이 있어야 한다. 원론적인 의견 제시보다는 전문적인 정보와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의제를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집행이사국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에서 선도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내 학문의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21차 MAB 국제조정이사회

5월 25-29일 제주도에서 열린 이번 회의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신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다. 그간 이사회 의장단의 권한이었던 신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처음으로 이사회 안건으로 다루어지면서 신규 지정여부에 국내외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신안 다도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홍도, 흑산도, 비금도, 도초도, 증도 등 신안군 내 5개 섬을 중심으로 지정된 이곳은 국내 조류의 75% 이상인 337종에 이르는 철새들의 중간 이동통로로서,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섬마다 발달한 넓은 갯벌과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은 향후 토착지식을 통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주민의 경제 향상에 기여하는 사례로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도 단군성지로 보존되어온 북한의 묘향산을 포함해 17개국 22곳이 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전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은 107개국 553곳으로 늘어났다. 시리아와 말레이시아는 처음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는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남남협력 협력 조인식이 열렸다. 전 세계 주요한 열대우림 지역인 아마존 유역, 콩고유역, 동남아 열대우림지역 간에 협력을 맺음으로써, 브라질의 지속가능발전 남남협력 유네스코 석좌교수와 콩고민주공

미래를 위한 곳, 생물권보전지역

김은영(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

화국 킌사샤대학에서 운영하는 유네스코 열대우림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박사 후 연구과정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는 한국이 제안한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설립이다. 한국은 제주도가 유네스코 신탁기금으로 2006년에 시작한 아태지역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협력사업인 ‘제주 이니셔티브’를 확대,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연안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자 스페인과 공동으로 세계 네트워크 설립을 제안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제안서를 개발하고 이사국의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섬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인 스페인의 메노르카와 함께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끌게 된다.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해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는 생물권보전지역 내 기후변화 및 빈곤 경감을 위한 친환경적인 활동에 대한 소액 금융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MAB 이사회 앙리 줌보 의장이 국내 사정으로 불참함에 따라 부의장인 최철일 MAB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의장 역할을 대신한 이번 이사회는 생물권보전지역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연구까지 포함해 MAB 사업의 활동방향을 담은 ‘MAB 미래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선언문 채택과 함께 5

월 29일 막을 내렸다.

MAB 역사상 처음으로 유네스코 밖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이사회를 유치한 우리나라는 환경부, 제주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이 긴밀히 협력해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지난 몇 달간 노력해왔다. 그리고 치밀한 회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으로 유네스코 사무국을 비롯한 이사국들의 칭찬을 받았다. 이러한 역량을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주민참여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승화시켜, 앞으로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



▲ 신안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홍보사진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천일염

인 터 뷰



MAB, ‘환경보전—지속가능발전’ 결합하려는 시도 DMZ 협력은 고위층의 정치적 결단 필요

나타라잔 이시와란(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국장)

5일 간의 숨 가쁜 일정이 끝난 5월 31일 아침, MAB 사업 책임자인 나타라잔 이시와란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국장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임현록 과학팀장이 만났다. 스리랑카 출신인 이시와란 박사는 2004년부터 유네스코 본부 국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제주 MAB 이사회가 ‘잊을 수 없는 멋진 회의’였다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취지 및 역할에 대한 관리 당국의 적극적인 인식 증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네스코를 떠나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열린 첫 이사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주 성공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년마다 열리던 이사회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하고, 이사회 의장단이 하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결정을 이사회가 하기로 하는 등 주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열대우림지역의 남남협력 이니셔티브 체결,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설립 등 큰 성과를 낳았다.

♣ MAB 활동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은? 생물권보전지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MAB 사업은 생물권보전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생태계 분야도 중요하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아니지만 주요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생물권보전지역과 도시 생태계 간에 개념적 혼동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생물권보전지역 간 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 이번 회의에서 여러 생물권보전지역이 새로 지정되었다. 최근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경향은 어떠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시리아가 추가되어 생물권보전지역 보유 국가는 107개국으로 늘어났다.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1곳이 지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기대 또한 꾸준하다. 인간과 환경 간 관계가 점차 긴밀해지고 있는데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 및 조화를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유산과 다른 점이다. 생물권보전지역 내 활동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세계유산은 법적 보호지역인 핵심지역 중심이기 때문에 표시하고 알리기가 쉽지만, 생물권보전지역은 완충지역과 넓은 전이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일반인들이 생물권보전지역의 취지를 알 수 있도록 관리 당국이 지속적으로 인식증진 활동을 펼치고,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역 주민에게 주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해녀를 통한 다양한 생태관광도 가능하다.

♣ 최근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통한 남북 간 평화 증진 방안을 어떻게 보는가?

DMZ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MAB 사업의 큰 업적이 되겠지만, 북한의 불참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전문가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고위층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 유네스코독일위원회가 아프리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독일위원회는 볼빅 생수 판매사인 다농과 파트너십을 맺고, 수익금을 독일 생

트워크 운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제 회의는 끝났고,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활동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3개 생물권보전지역 중 2곳이 섬이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높아진 관심이 국내 MAB 활동 강화로 이어질 것 기대한다.

이집트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세계유산은 과거를 보존하는 곳이고, 생물권보전지역은 미래를 위한 곳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속가능발전의 학습장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곳으로 점점 주목받고 있다. 우리정부가 강조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곳이 될 수 있다. 이 사회의 한국 개최를 통해 국내에 MAB와 생물권보전지역이 널리 알려지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물권보전지역 활동 지원에 쓰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5개국 유네스코국가위원회에 이처럼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해 창의적인 발상 및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들 국가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각국의 유네스코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 일부 국가의 경우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MAB 위원회의 관계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주로 교육부나 외교부 산하에 있고, MAB 활동은 환경부 혹은 과학기술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MAB 사업을 환경사업으로만 인식하는 것도 문제다. MAB가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을 결합하려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등 일부 회원국은 이를 유엔환경계획(UNEP)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MAB 도시사업에 대해 소개한다면?

도시 생태계는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과 인접도시 간의 상호관계와 양자 간 주고받는 편익 등이 주요 관심사인데, 이는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분야 사회변동사업(MOST)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이다. 우리 국에서 도시생태계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가 인문사회과학부문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있다. ■

— 정리: 김은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

청년포럼 참가기

이번 포럼에는 기존의 발상을 타파하는 ‘깨짐’이 있었다. 그래서 유쾌하고 진솔했다. 이를 가능케 한 동력은 무엇보다도 포럼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었다.

“우리 대학생들은 기껏 정부에 요구하는 게 등록금 인하입니다. 대학이 ‘지성의 전당’이라는 허위의식 때문이죠. 지성의 전당에서 어떻게 이런 낮 뜨거운 요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검열하며 그 이상을 상상하지 않는 거죠. 처절한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살 집을 달라, 먹고 살 수 있게 해라, 진짜 절실한 것을 요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문화공연을 하는 사회적 기업 ‘노리단’의 김종휘 단장은 청중을 향해 ‘청년문제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실업이 문제니까 취업이 해결이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청년문제는 사회구조와 시스템에 연결된 문제인데도, ‘경기만 풀리면, 일자리가 생기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위안용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려 머릿수 채우기로 승부를 보면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문제해결은 너와 나를 살리는 경험, 작은 사회를 살리는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청년문제를 논하는 자리니 당연히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 법. 올해 스물 다섯, 부산에서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인 ‘인디고 서원’을 열어 활동 중인 한지섭 군은 짜릿한 목소리로 당차게 발언을 쏟아냈다.

원탁토론 지상중계

〈참석자〉

- 사회: 이선재(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팀장)
- 토론(가나다순)
 - 김종휘(하자센터 부센터장/노리단 단장)
 - 김현진(청년인턴)
 - 박해선(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 엄기호(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 유병선(경향신문 논설위원)
 - 정일용(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 조한혜정(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최승아(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재학생)
 - 한지섭(인디고서원 활동가)

청년 문제 진단하기, 그리고 사회 의제화 방안

• **김현진:** 요즘 청년세대는 ‘집단적 강박증 환자’들이 아닌가 싶다.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여유와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 **박해선:** IMF 사태를 목도한 세대인 우리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입시지옥’ 속에서 공부하면서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최근의 등록금 문제는 학벌주의의 연장선에 있다. 대학 교육 자체는 계급상승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 **유병선:** 기성세대가 청년을 읽는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자신들의 경험에 빗대어 자신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일자리 문제는 내가 청년기를 보낸 80년대 중반에는 전혀 없었던 고민이다. 지금은 대학생이 너무 많다. 70년대 대학진학률이 22%였지만, 지금은 84%를 육박하고 있다. 80년대 청년은 사회적인 것이 과잉되었던 세대인 반면, 지금의 청년은 개인적인 것이 과잉된 세대이다. 부모가 가진 사회적 과잉에 대한 피로가 지금 청년들에게 이전되었다. 세대 간 문제를 사회적인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정일용:**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세계화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졌다. 경쟁에서 밀리고, IMF 이후에는 소위 ‘괜찮은’ 직업들이 20만개 정도로 축소되었다. 대학 졸업자 가운데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규직을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거나 계약직 위주로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흐름은 계약직을 선호하는 흐름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어느 사회에서

‘무한 C세대’의 유쾌·상쾌·통쾌한 외침

김현진(청년인턴)

“앞에서 계속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시고, 청년들이 힘들다고만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완전 살 만합니다. 남들은 인디고 서원에서 활동하는 저희가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는데, 저희는 그냥 우리 하고픈 거 하면서 사는 것뿐이거든요. 상상력, 창의성, 그런 것보다 저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기조강연과 4명의 주제발표로 진행된 1부가 끝나고 장장 2시간에 걸쳐 원탁토론이 진행되었다. 청년 세대와 그들이 처한 사회적 난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시종일관 참가자들 간에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희망청의 협력으로 진행된 ‘88만원 세대’라는 부정적 상징어를 대체할 ‘한국 청년 새 이름 짓기’ 공모전에서는 ‘무한 C 세대’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C는 ‘위기(Crisis), 창의(Creative), 행동(Conduct)’를 동시에 의미하는 알파벳이다. 무한 위기에 노출된 지금의 청년들이 끝없는 창의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토론에서 오고 간 이야기 중에 유병선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말이 문득 떠오른다. “시대를 막론하고 청년들은 언제나

불안했다.” 오늘날만큼 청년이 철저히 소외된 시대가 있었던가 하는 의문이 든다.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고 외적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소외된 존재.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는 데에는 세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포럼 참가자들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이다. 세대 간 공감대를 넓히면서 서로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포럼과 청년의 주체적인 움직임이 함께 한다면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우리 청년들이 분명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나 어려움은 있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가 관건이다. 우리와 국토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산업혁명을 주도함으로써 세계로 눈을 돌렸고, 이를 계기로 비약했다. 우리도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 꿈을 펼칠 곳을 찾아야 한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바라보고 성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조한혜정:** 지금 이대로 돈이 지배하는 체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구조, 돌봄의 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은 청년의 몫이다. 경력 관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 **김현진:** 지역사회에서 청년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역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한다.

• **조한혜정:** 청년들이 의제를 설정하려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군복무의 경우 ‘사회에 필요한 노동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속 있는 대안을 내놓자.

• **한지섭:** 어른들은 무작정 학생들을 외국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글로벌 마인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 소용없다. 학생들을 어떻게 글로벌화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에 제안한 의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밖의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과연 청년들이 지녀야 할 안정성에 관한 정의인가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청년 실업 아닌, 청년을 위한 의제 나와야

• **조한혜정:** 대학 총학생회 측에서는 어떤 이슈에 집중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훌륭한 대학생들이 숨



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내건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엄친아’, ‘명품인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만을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 제도의 경우 강력히 반대한다. 사회적 의무라면 모를까, 졸업 후 1-2년간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고, 중고등학교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한다.

• **정일용:**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정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정부도 인턴제를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것이지,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파악했으면 좋겠다.

• **유병선:** 분노할 땐 표출해라. ‘내 탓이오’라는 생각이 내면화되면 정당한 요구도 못하게 된다. 분노할 땐 하고, 함께 고민을 하자.

• **최승아:**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우리에게 이번의 어려움은 담금질의 기회가 되리라 본다. 주체는 나 자신 뿐이다. 이번 논의에서 얻은 것들을 바탕으로 씩씩하게 살아가자.

• **박해선:**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 얼마나 낙관적으로 파악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 **한지섭:** 유네스코가 실업문제를 넘어 청년에 대한 정의를 확립해 주어야 한다. 취업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취업희망자를 위한 의제가 아닌, 청년을 위한 의제가 나오도록 고민해야 한다.

• **엄기호:** 문제의 처절함, 급박함에만 얽매어 있으면 본질을 바라볼 수 없다. 고충보다는 영감과 감흥, 감동을 주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 **김종휘:** 유네스코 청년포럼을 통해 여러 청년상을 보았다. 유네스코가 여러 방면의 청년들에게 ‘데뷔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 20대가 20대를 야단치는 사회구나’ 싶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듯싶다. 여기 모인 청년들은 각기 다르지만 자신을 알고, 남 눈치 안보고 나를 찾고자 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시기가 왔는데, 이 때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작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

— 정리: 정용서(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팀)

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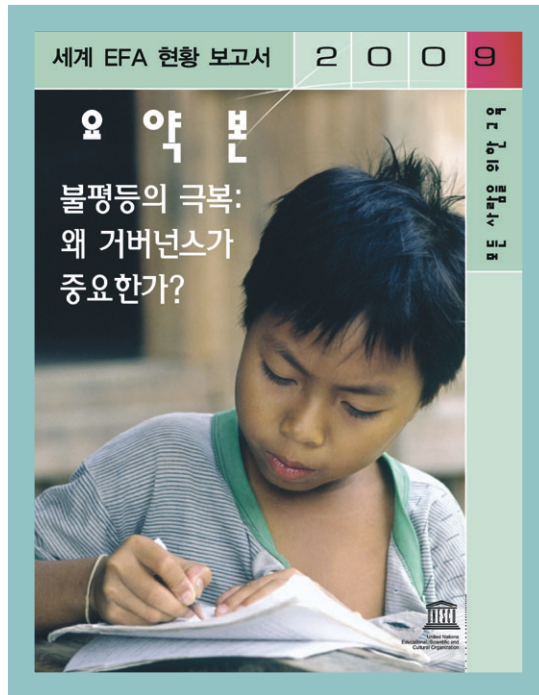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성과 달성 속도는 매우 느리며, 나라마다 동일하지도 않다. 현재 몇몇 EFA 주요 목표들의 경우 달성되기 힘들만큼 명백히 위험 상태에 처해 있다.” 2000-2015년이라는 EFA 달성 기간이 절반 지난 시점에서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세계 EFA 현황 보고서 2009』의 서문을 통해 EFA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유네스코 본부가 7번째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학 전 아동의 보육, 초등교육의 보편화, 평생교육, 성인 문해율, 남녀균형, 교육의 질’ 등 EFA 6대 목표를 바탕으로 전 세계 EFA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소득, 성별, 지리적 위치, 언어 등 EFA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도국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국가 교육정책이 재정 부족으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선진국들이 지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제언으로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EFA의 진행 상황에 먹구름이 낀 원인이 ‘불평등’에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그 처방으로서 ‘올바른 거버넌스(governance)’를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의 유아교육기관 등록률이 79%인데 반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14%이다. 개발도상국의 평균 순 취학률이 85%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 7,500만 명의 아동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약 7억 7,600만 명의 성인이 기본적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 3분의 2는 여성이다. 아랍권 국가 중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교육 분야에 있어 남녀 균형을 달성하지 못했다. 인도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절반 이하만이

불평등의 극복: 왜 거버넌스가 중요한가?

『세계 EFA 현황 보고서 2009』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보고서는 전 세계 상황을 조명하면서 EFA 6대 목표가 ‘불평등’이라는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음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대, 학교 거버넌스 개혁, 교원 정책과 모니터링 개선, 빈곤국

복을 위한 정책입안 등 4가지 거버넌스 영역에서 정부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교육원조의 확대와 효과성 제고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원조에 힘입어 탄자니아에서는 학교 밖 아동의 수가 3백만 명 감소했고, 에티오피아에서는 교육지출이 3.6%에서 6%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조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연속 교육부문 국제원조 규모는 감소했으며, 원조의 예측불가능성, 공여국의 분산, 협력의 부재 등 원조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기초교육을 위한 지원 증대, 공여국 수의 증가, 교육원조의 형평성 제고, 원조효과성 향상을 선진국의 실천 사안으로 제시한다.

한국의 무상원조사업 가운데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16.3%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육지원액 대비 기초교육분야의 지원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70%를 웃도는 미국, 영국 등 선진공여국과 비교해 볼 때 지극히 적은 수치이다. 이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EFA 등 국제 개발 아젠다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개발협력 전략의 중심에 위치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추진하면서 선진 공여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의 현 상황을 볼 때 MDGs와 EFA는 더 이상 단순한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우리의 교육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도우미가 될 것이다.

보고서 원문과 요약본의 한글판 PDF 파일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esco.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 이선경(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

협회소식

유네스코광주·전남협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치과 무료진료

광주·전남협회는 지난 2008년 3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과 체결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헌사업 추진 협약’의 일환으로 5월 1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병원에서 이주여성 98명을 대상으로 치과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



유네스코서울협회

송파새물결봉사단, 무료 급식봉사 실시

2008년 7월에 결성된 서울협회 부설 ‘송파새물결봉사단’이 5월 19일 송파구 마천동 아름다운교회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녁 무료급식 봉사를 실시했다.

송파새물결봉사단은 기술, 문화, 의료 등 각 분야별 봉사단으로 나누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

유네스코대구협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서 문화체험 부스 열어

대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대구광역시 공동 주최로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5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참가, 각국의 전통 의상을 선보이는 문화체험 부스를 열었다. 20여 개국 전통의상을 관람객들이 입어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했으며, 유네스코 활동 동영상 자료 및 관련 브로셔, 자체 제작한 대구협회 활동자료를 비치해 유네스코 이념과 활동을 홍보했다. ■

2010 예술교육 세계대회 제3차 실무조정회의 대회 운영방안 등 주요현안 논의

지난 5월 5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2010 예술교육 세계대회 제3차 실무조정회의’가 개최되었다.

오는 2010년 5월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예술교육세계대회(이하 ‘서울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 본부가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조르주 푸생 창조산업과장, 이도연 담당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7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 앞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대회의 방향 및 구성, 국제자문위원회의 역할, 글로서리 연구 및 옵저버토리 결과물 도출 등 서울대회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대회의 주제와 관련해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실무조정회의에서는 전반적인 방향만을 논의하고 국제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국외인사와 국내 참석인원을 균형 있게 배정해 한국만의 행사가 아닌 국제행사로 치러줄 것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대표단은 차기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에 예술교육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총회기간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유네스코에 요청했다. 또한 예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NGO 회의 및 청년포럼 등을 행사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아울러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인 대회의 목표 및 성과물에 대해서는 지난 포르투갈 대회의 주요 성과물로서 예술교육정책 로드맵을 채택한 반면, 지난 11월 서울 실무회의에서 제안된 서울 선언문의 경우, 공신력을 가지려면 유네스코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처럼 ‘예술교육 10대 목표(가칭)’가 제안되기도 했다.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추진력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6년 3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회에서 한국이 차기대회 개최를 제안한 것이 대회의 주요 성과로 공식 발표되어, 제175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바 있다. 포르투갈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서울대회는 문화다양성 증진과 관련해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 이행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로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20세기 초 식민 제국주의의 대규모 확산은 양차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초래했다. 전쟁이 가져온 참상과 잔혹함 그리고 극단의 공포는 가공할 만한 것으로 집단 병리현상을 초래하기까지 했다. 사람들 사이에 증오와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진 핵폭탄의 엄청난 파괴력은 인류 절멸의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1945년 유네스코의 창립은 이와 같은 참혹한 경험을 겪은 인류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재성찰한 결과였다.

지적·도덕적 국제 기구로 설립된 유네스코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교육을 통해 전쟁 기간 동안 상호 멸시와 증오로 얼룩진 인류의 마음을 정화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국제이해교육은 이를 위한 유네스코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로 시작하는 유네스코 현장 전문도 유네스코가 국제이해교육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이해교육의 중요성은 곧이어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1948) 26조(교육권)¹⁾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제이해교육이 단순히 여러 교육 분야 및 사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교육의 목표’에 가장 충실한 교육이라는 점이다.

유엔 개발 10년 계획이 시작된 1960년 이후 ‘발전’이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게 되고 교육과 발전 간의 연계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제이해교육은 국제사회의 급속한 개발과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 환경, 평화 구축, 인권, 민주주의, 빈부 격차 관련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다루는 내용이나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국제이해교육 사업에 매우 빈약한 자원이 할당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기 힘든 탓에 실천보다는 말에 그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이해교육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교육 차원에서 다룬 유일무이한 통로였다.

국제이해교육은 국제 정치적 역학 구조와 이해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변화를 겪게 된다. 그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유네스코 교육 사업의 주축

서구권이 사업을 주도한 시기에 국제이해교육은 유네스코의 중심 사업으로 부각되었다. 초기에는 ‘세계시민교육(1950년)’, ‘세계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한 교육(1952년)’ 등으로 불리다가, 1954년에 ‘국제이해와 국제협력 교육’이라는 용어가 자리 잡았다.

1953년부터는 국제이해교육 시범학교 사업인 ‘유네스코 협동학교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시범사업은 ▲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 문제 ▲ 타 국가 이해 ▲ 유엔 체제 알기 등을 중심 내용으로 삼았다. 이 시기에 국제이해교육은 문해교육과 함께 유네스코 교육 사업의 양대 축을 이루지만,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육과 발전의 연

계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제이해교육에 할당되는 자원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국제교육권고’ : 국제이해교육의 지침

1970년대는 국제사회에서 수적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게 된 제3세계 그룹이 기존 세계질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결집한 시기이다. 그 노력의 대표적인 결실로 197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신(新)국제경제질서선언’을 들 수 있다.

1974년은 국제이해교육사업에서도 중요한 해였다. 제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국제이해, 협력과 평화를 위한 교육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이하 ‘국제교육권고’)’를 채택했다.



국제교육권고는 서구 중심으로 관념적 수준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기존의 국제이해교육에 제3세계의 시각과 실천적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었다. 이후 국제이해교육의 우선순위가 국제사회질서에 따라 변화하게 되지만, 이 권고는 오늘날까지도 국제이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서 효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 권고는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실천적 참여를 강조하면서 평화 군축문제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고초·중등 교육에 머물러 있던 국제이해교육을 성인교육까지 포함한 모든 형태 및 단계의 교육, 즉 ‘평생교육’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이해교육의 현실 참여를 강조하는 주장은 1960년대 말에 품기했던 반전, 반체제 시민 및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서구 국가들로부터 유네스코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결국 국제이해교육을 둘러싸고 발생한 동-서, 남-북 진영 간 갈등은 국제이해교육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이해교육의 르네상스

1990년대는 국제이해교육의 르네상스 시대였다.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에 따라 동구권이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 세계화 과정이 심화되고 무한 경쟁체제에 진입함에 따라 세계경쟁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문화 간 교육, 세계교육 등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각국의 전통가치와 문화,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절감하고, 전 지구적 규모의 생태, 노동,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위기에서 살아남는 길을 일러주는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1992년 ‘평화의 문화 사업’을 시작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의 시장경제체제 편입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민주주의 및 인권 교육 사업을 추진했다. 1993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44차 국제교육회의에서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선언’ 및 통합적 활동계획을 채택한 것이 그 대표 사례다. 1996년 유네스코가 출판한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보고서』에서도 교육의 네 기둥 가운데 하나로 ‘함께 사는 교육’을 제시함으로써, 급속한 세계화 과정에 따른 문화 정체성 위기 및 문화·종교 간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제사회 관심 서서히 줄어들어

2000년에 유엔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달성할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절대 빈곤 1/2 감소, 초등교육의 보편화, 양성평등, 영아사망률 2/3 감소, 산모 사망률 3/4 감소, HIV/AIDS 확산 저지 및 감소, 지속가능발전 원칙 적용 및 국제개발 협력 강화 등 8개항이 제시되어 있다. 국제이해교육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국제이해 증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000년 이후에는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국가를 중점 대상으로 한 인권, 평화, 민주주의 교육도 국제사회의 우선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시리즈 순서

- ① 인류의 이상, 유네스코의 탄생
- ② 한국, 유네스코 가입과 활동의 시작
- ③ 문해 - 어둠을 깨뜨리는 빛
- ④ 누비아 캠페인 - 세계유산보호의 첫걸음
- ⑤ 신국제정보질서 - 무모한 편가르기인가 불운의 개혁인가
- ⑥ 국제이해교육 - 함께하는 삶을 배우다

※ ‘툏다’는 “살살이 뒤지면서 찾다”는 의미입니다.

세계화, 국제이해교육의 기회이자 도전

이처럼 유네스코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국제이해교육사업은 국제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 유네스코는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ESD, 2005-2014)’ 사업의 중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를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존의 국제이해교육 사업 가운데 환경 및 발전 관련 사업들을 ESD 사업의 일부로 포섭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국제이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세계화에 따른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는 『21세기 교육위원회 보고서』에서 ‘함께 사는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왜 함께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국제이해교육 발전의 주요한 과제이다.

국제이해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국제사회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규명하고 의제화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 이승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원장)

- 1) “……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에 이해와 관용,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이 발행하는 영문 국제이해교육 전문지 『상생(Sangsang)』